

## 요나 1:4 – 1:16

4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5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6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북동쪽으로 약 500 마일 떨어진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배를 타고 서쪽으로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나가 탄 배는 그 지역을 순회하던 화물선일 가능성이 많은데, 4 절 내용에서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 던진다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5 절 내용을 보면 저마다 저희 신에게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외에도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 선장에게 있어서 어느 신에게 간구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 말을 보면 본문에서 같은 어원의 단어가 (야라드 - 내려가다, 타다)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3 절과 5 절에서 옴바로 내려가다, 배를 타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다 와 같이 비슷한 발음의 같은 어원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망치는 도망자로 전락한 것이 강조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요나가 대비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선장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7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보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8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यो?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9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यो.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3)섬기는 사람ियो." 10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낚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11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12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소."

강풍의 원인을 알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목하시는 장면입니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민수기 26 장 55 절에서도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라는 말씀이 있고 실제로 여호수아 18 장 6 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잠언 16 장 33 절에서도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에게 누구냐고 묻자, 요나는 자신이 하늘에 계신 주님, 바다와 땅을 만드신 분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강풍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선원들에게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요나의 행동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11 절의 선원들의 질문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런 선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요나는 선원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과 많이 대비가 됩니다.

13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14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빙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15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16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열심히 노를 젓지만 배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쉬운 물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원들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14 절에 나오는 선원들의 기도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변화는 5 절에서 각자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던 선원들이 모두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15 절에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신것을 깨닫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6 절에 나오는 선원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제물을 바쳐 주님을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